

진실의힘 NEWSLETTER

진실의힘

[계엄 단상]

"그리고 정말 천만다행이다"

김재명

김재명 선생은 1975년 4월 1일 중앙정보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한 이른바 "재일교포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10년 형을 선고 받고 형기를 모두 채우고 풀렸었습니다. 47년이 흘러 2022년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아내, 딸과 함께 처남이 사는 미국을 여행할 계획이었다. 약 3 개월 전부터 여행계획은 두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겨 놓은 상태였는데 나는 동부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일정을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다. 처남이 사는 L.A.에서 동부까지는 비행기로 6 시간, 시차가 3 시간 나는 장거리라며 딸과 아내는 L.A.에 남겠다고 했다. 내가 50 년 전의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간다니 아내가 마음이 상했을까 싶어 물어보니 아니라고 한다. 리치먼드 가기 전에 뉴욕을 들르자고 설득해서 온 가족이 같이 가기로 했다. 어차피 L.A.에서 리치먼드까지는 직항이 없어 뉴욕이나 워싱턴을 경유해서 가야 했다.

뉴욕 일정을 마치고 리치먼드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의 고속버스보다 좌석이 좁고 불편한 비행기는 한 시간 이상을 날아 리치먼드 공항에 도착했다. 1975 년에 마지막으로 만났고, 3 년 전 한국에 왔을 때 잠깐 봤던 친구는 마치 어제 보고 오늘도 보는 사람처럼 나를 맞았다. 아주 침착한 표정으로. 내 아내가 있어서 그랬을까? 그런 것 같았다. 짐을 싣고 공항 주차장을 나오는데 출구를 놓쳐 두 번이나 헤맨 끝에 겨우 빠져나왔다. 태연한 척 하기는...

담장이 없이 키 큰 소나무들로 둘러싸인 전통적인 미국식 주택에 들어서니 친구의 남편이 반갑게 마중을 나왔다. 친구는 나와 동갑이고 그는 82 세. 독일이 고향이고 미군 장교로 복무하다 퇴역을 했고 다리가 불편해 지팡이

를 짊고 있었다. 문득 일가친척 없는 먼 곳에서 몸이 불편한 남편을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 친구가 안쓰러웠다. 남편에게는 나를 사촌이라 했다고 한다.

우리 둘은 장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었다. 1975년 1월,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2월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후,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했다. 친구는 방황하다 미국으로 건너가 취업 사기를 당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한국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했다. 한국을 떠날 때 우리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들렀는데 어머니가 한복 한 벌을 마련해 주셨다고 했다. 50년 가까이 보관하던 한복을 보여주는 데, 자식에 대한 아픔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때 용기를 내서 참고 너를 기다릴 걸 그랬어.” 라고 친구가 말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바깥만 내다봤다. ‘이 친구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을 살고 있을까? 나도 물론 힘들었지만 자기가 훨씬 더 아팠을텐데. 내가 먼저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는데...’



<50년 간 간직해 온 한복>

3박 4일을 함께 하고 L.A.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워싱턴에서 탔다. 친구는 두 시간 거리를 운전해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짐을 내려놓고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만에 용기가 생겼는지 친구가 한 번 안아보자고 한다.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다. 말로 못했지만 헤어진 지 50년이 흘러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남은 삶을 잘 살아가자는 다짐을 했다. 친구가 아내에게 “함께 와주고 나를 거두어주어 고맙다”고 주제넘은 참견도 했다. 그렇게 또 기약 없는 이별을 하고 헤어졌다. 우리의 평범했던 삶을 이렇게 박살 내놓은, 그리하여 막강의 권력을 누려왔던 그들은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더 얻게 되었을까?

귀국해서 시차 적응도 안 되고 기온 차이도 커서 컨디션 조절이 힘들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12월 3일. 밤에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전화기 알

람이 울린다. 대통령 심야 긴급 담화를 한다고 떠서 급히 TV를 켜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종북좌파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왜 이 시간에 저런 내용의 담화를 하고자 했을까? 가웃거리며 보고 있었지만 바로 뒤이어 나온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은 잘못했거나 잘못 들은 것으로 생각했다. 계엄을 선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담화 내용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술에 취해 환김에 막말을 하는 잡배도 아니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등등의 소리를 기회 있을 때마다 떠들어 댔고, 전직 법을 다루던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선을 지나치게 넘었다 싶었다.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라며 긴급조치와 계엄을 입에 달고 살았던 박정희와 국가의 위기를 본인의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으려 계엄을 이용했던 전두환. 그 더러웠던 기억이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우리 세대는 45년만의 계엄이 영똥하기도 하지만 공포스럽기도 하다.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어지는데다, 정신과 의도가 올바르게 맞은 자가 자루를 쥘 경우 더욱 혼돈스러울 테고 피해는 항상 국민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딸아이는 12월 14일 지방에 있는 친구들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 참석해 밤을 세우고, 다음 날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특별한 일을 하고 온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어디 잠깐 다녀온 듯 담담한 표정이어서 은근 놀랐다. 무용담이라도 늘어놓으려나 했는데 말이다. 최루탄과 돌멩이가 날아다니던 70년대 나의 대학생 시절의 데모와는 너무나 다른 요즘 세대들의 시위 모습이 의아스럽기도 했다.

온 나라가 휩쓸려 돌아가는 이 혼란의 소용돌이가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지만 쉬워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의 뜻이라면”하면서 하야를 선언하고 떠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대로 져들었던 건가? 왜 저리 지도자 답지 못한 변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 아직도 사태를 마무리하기에 시간이 더 필요해 보여 참으로 답답하다. 계엄이 여기에서 멈추어 선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지금 세대들은 알까?

독재자의 총칼에 사망자가 200여 명에 가까웠던 4.19 혁명, 바로 뒤 5.16 군사쿠데타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부터 2024년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계엄 사태를 보았고 겪었던 나로서는 이 상황이 낯설지도 않지만 적응도 어렵다. 다만, 수많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낳았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그나마 이 정도에서 폭주를 멈추어 세운 위대한 민중의 힘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정말 천만다행이다.

[프로젝트]

집단수용시설 영화숙 재생원 피해자 면담 조사



(재) 진실의 힘은 '부산 영화숙·재생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내용과 그것이 삶 전체에 미친 영향을,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의 시선을 통해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피해자로서 진상규명 운동을 시작하고 과거사위원회 진상 조사를 이끌어낸 한종선 씨의 경험이 유사한 피해의 진상을 밝히는 작업에 의미있게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원소개]

주목받지 못하는 목소리를 만나는 곳, <소년의서>

임인자_동네책방 <소년의서> 대표



10 년간 진실의 힘을 후원해온 임인자 회원님은 광주극장 옆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충장로의 역사와 기록을 공유하는 책 ‘충장디스커버리’를 썼고, 이 책을 계기로 광주시 동구청과 함께 ‘동구의 인물’을, 충장상인회와 함께 ‘충장로 오래된 가게’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동네서점 <소년의서>를 기지삼아 지역의 문화자원을 만드는 일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을 후원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에는 연극을 하고 계셨나요?

10년 전에 저는 서울변방연극제의 예술감독으로 변방연극제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변방연극제의 ‘변방’은 중심부가 아닌 최전방의 경계, 실험에 자유롭고 외부의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며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형식의 연극, 연극이 아닌 것들의 연극, 사회적 목소리로서의 연극을 표방하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평택 기지촌 할머니들이 직접 출연한 연극 <숙자이야기>를 초청하여 개막작으로 공연했고,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룬 <우리는 난파선을 타고 떠돌았다>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25시-나의 시대에 고향>을 개막작으로 초청했고,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과 ‘카페 그’의 이야기 <법앞에서>를 초청했고,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의 <프릭쇼>를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나요?

광주에서 자랐는데, 어린 시절에는 봄, 여름이면 어김없이 거리에 매운 가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를 따라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담벼락에 눈을 부릅뜬 보라색 얼굴과 함께 “이게 왜 익사란 말인가”라고 쓰인 포스터가 붙어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의문이 들었죠. ‘어째서 학교에서는 이런 질문에 답을 알려주지 않는가’, ‘매운 가스 냄새는 이런 일 때문이구나.’ 막연히 학교 밖에 많은 답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고 3 때까지는 공부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같은 반에 무용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수업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 시간에만 교실에 왔는데 스텐레스 보온도시락을 보며 잘 사는 집 친구인 것 같아 질투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린 학교 축제에 그 친구가 하는 무용을 2층 객석에서 보았는데,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때부터 예술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질문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 보라색 얼굴 포스터 위에 붙은 세상에 대한 질문을 저도 예술을 통해 하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책방<소년의서>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소년의서>를 소개해주세요.

처음 <소년의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린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팔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점 이름을 지을 때, 해결해야 하는 사건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짓고 싶었어요. 『살아남은 아이』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이 서른 여덟 살에 쓴 책인데 사건이 해결되지 못해 사건 당시 나이인 ‘아이’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어요. 다음으로 광주에 여는 서점이니까 한강 작가님의 책 『소년이 온다』를 생각했고, 그래서 이 두가지를 생각하며 <소년의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년의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소개하려고 노력하면서 인문·사회과학·예술서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 임인자님은 2024년 11월 11일 ‘제8회 서점의 날 기념식’에서 서점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바빠졌다고 했습니다.

동네 책방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강 작가님 수상 전날 단 한 권의 책을 팔았어요. 그렇게 팔아서는 사실 월세를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를 비치하는 것은 서점의 지향과 맞지 않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고집을 부리며 하고 싶은 대로 취향대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다가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 이후에 저희 서점도 처음으로 오픈런이 있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동네 책방인 <소년의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 독립서점 주인으로서 의견이 있으신지요.

동네서점을 운영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독자님들과 작가님들을 이어가면서 출판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쉽지 않지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책 수급과정에서 대형서점과 동네서점 사이의 유통체계의 불균형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동네서점을 유지하는 데에는 도서정가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좀더 싼값에 책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서정가제를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서점의 활인 때문에 지역 서점이 사라져간 것을 봤는데요. 도서정가제가 없어진다면 동네서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유통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도서정가제의 안정된 이행이 되기를 정부에 바라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팔기 위해 동네서점을 지키고 있는 많은 동네서점 책방지기님들을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연극’에서 ‘서점’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왜 일까요?

<소년의서>는 대형출판사 위주의 유통과는 다르게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책들을 책방지기의 지향에 따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점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가 해왔던 연극들과 축제 기획의 지향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변방연극제를 할 때에도 그러한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동네책방을 운영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서점 외에 하는 일이 많은데,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의 만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 활동은 서울과 다르게 지역의 위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일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의 횡령사건 대응 활동을 시작해서 2020년에는 광주시립극단에서 일어난 부조리문제에 대한 대응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광주연극계에서 생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연대활동을 했습니다. <소년의서>는 저녁에는 대책회의를 여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대해 나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을 때에 연대의 장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힘들기도 하지만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10년 간 지켜 본 진실의 힘은 어떻습니까?

2014년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총무로 활동을 했는데 그 때 <진실의 힘>의 공간을 빌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의 첫번째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날 이후로 <진실의 힘>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연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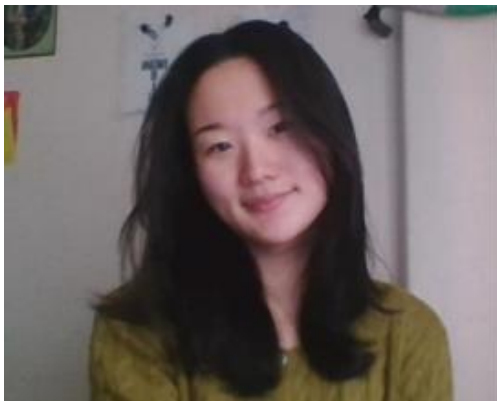
은 금액을 후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후원금액은 작지만 저의 지지와 연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의 힘>이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서점 대표로서 당부나 기대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진실의 힘>이 출판한 『세월호, 그날의 기록』은 2~3 번 봤는데, 꼼꼼한 기록이 인상적이었어요. 주장이 아닌 기록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고요. 진실의 힘에서 책이 나올 때마다 관심있게 지켜보고 <소년의 서>에도 입고해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책을 정말 많이 팔 자신은 없어서 <진실의 힘>에 따로 책을 구하고 싶다고 연락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기점으로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상영회] "진실의 힘 설립자들"

분노의 날들 중 가장 따뜻한 밤



권주현(서울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연이은 과제와 시험으로 지쳐 있었던 시기를 지나 12월 17일에 재단법인 '진실의 힘'에서 주최하는 '작은 상영회'에 다녀왔습니다. 남아 있는 일정을 보류하고 상영회를 찾은 이유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곳을 찾는 분들의 기억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 저에게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상영회에서 느꼈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기억의 힘'을 다시 느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상영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올 해 "진실의 힘 설립자들 - 작은 다큐 상영회"의 주인공은 박근홍 선생님, 박미옥 선생님, 정삼근 선생님, 허현 박미심 선생님, 그리고 심한운 선생님이셨습니다.

지난 겨울 임봉택 선생님의 자서전 『거꾸로 매달아도 사는 게 좋다』에서 선생님께서 직접 써 내려가신 기억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의 재판 자료를 통해 공부했지만, 피해자분들의 기억을 직접 전달받는 것은 자료를 읽는 것과는 매우 다른 감각입니다. 영상 속에서, 그리고 상영회에서 선생님들께서 해 주시는 이야기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눈빛과 몸짓에서 역시 그 오랜 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의 전반적인 흐름은 재판 자료에서 확인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영회의 경험은 선생님들이 보내신 ‘세월’을 더욱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것이 재판 자료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재판과 징역 이후 희생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또 국가 폭력은 희생자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박미옥 선생님과 심한운 선생님의 영상은 국가폭력이 남긴 상흔이 시공간을 통해 확산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진도 가족 조작간첩단 사건’으로 연행된 이후 7년형을 산 박경준 선생님의 따님 박미옥 선생님은 아버지의 연행 이후 ‘간첩의 딸’이라는 낙인을 견디셨습니다. 남편인 이호창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마주한 편견과 차별의 기억을 담아낸 영상은 고문 피해자 자녀들이 마주했던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드러냅니다. 희생자에게 가해진 폭력은 그 자녀의 삶에서 여러 기회를 박탈하고, 때로는 무력감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조작 간첩 피해자 자녀들에게 놓인 과제는 본인 앞에 놓인 폭력을 극복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부모님의 진실을 향한 과정을 함께하는 것은, 그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일으키는 과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신이 어릴 적 조작된 간첩 혐의로 사형된 아버지의 무죄를 위해 보낸 심한운 선생님의 시간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대한 어떠한 정보 없이, 다만 ‘아버지의 무고함’을 간절히 믿을 수밖에 없었던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박경준 선생님과 심문규 선생님의 기억은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을 거쳐 통해 지속되고, 확장됩니다.

‘고통의 확산’을 마주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적 확산이 매우 강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남은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죄 판결과 손해배상으로도 결코 보상받을 수 없는 세월의 고통이 치유되지 않고 남아 희생자를 괴롭게 한다면, 가해자를 용서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종종 증오의 감정이 지니는 파괴력을 목격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혐오하는 감정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절망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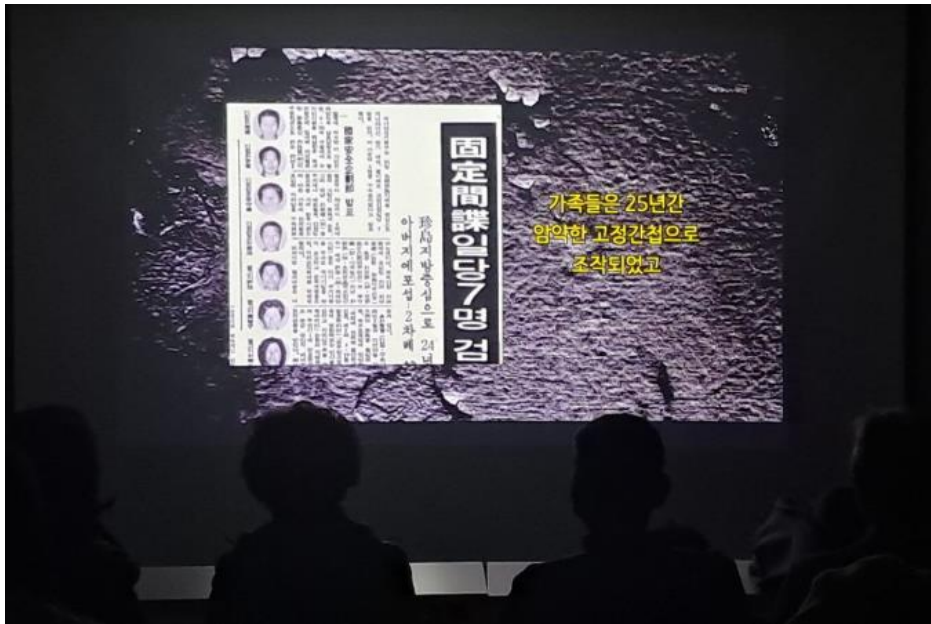
로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고통의 기억을 딛고 증오를 극복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과 원망의 시간을 가지고 ‘나의 삶’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삶은 지속된다.’ 지난 상영회에서 느낀 메시지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삶을 계속해서 파고들겠지만, 그것을 안고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은 폭력보다 강하다’는 진실의 힘의 가치에 가까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인한 생명력의 감각은, 일상의 작은 분노들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제가 근래에 느낀 감각 중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의 삶에 집중할 것인가?’ 지금부터 제가 고민해야 할 질문이 되었습니다.

한편 고통의 공간적 확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영회를 시작하자마자 화제가 된 12월 3일 밤에 관한 이야기에서 생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시민이 망설임 없이 국회로 달려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과거에 국가가 가했던 폭력과 그 상흔이 고문 피해자 선생님들을 거쳐 우리 사회 전반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고통의 기억은 퍼져 나갈수록 열어질 것입니다. 12월 3일에 저와 제 친구들이 느꼈던 감정과 선생님들께서 느낀 감정은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느낀 감정은 우리의 분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직 과거의 기억에 대한 세대 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기억이 존재한다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국가폭력의 아픔이 세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 치유되고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과거는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마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대에 따라 과거를 느끼는 감정은 다를지라도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상흔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것은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진실의 힘의 작은 다큐 상영회에 참여하는 경험이 언제나 제게 큰 보람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에 제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회에도 선생님들과 우리 사회의 기억을 치유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폭력을 넘어 서는 <진실의 힘>



임설희(감자 껍질 파이 북 클럽 회원)

<진실의 힘>을 알게 된 것은 조용환 변호사님을 통해서였다. 내가 속한 독서 모임인 <감자 껍질 파이 북 클럽>에서 지난봄에 조용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조 변호사님의 저서인 『안데스를 걷다』를 함께 읽으며 봤다. 그 때 조 변호사님이 조작 간첩 사건 등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내고 피해자 분들이 만든 단체인 <진실의 힘>의 이사로 활동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감자 껍질 파이 북 클럽>은 정치역사 사회학을 전공하고 민간인 학살에 대해 연구하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도 하신 연세대 한성훈 교수님과 함께 책을 통해 국가 폭력과 민간인 폭력에 대해 공부하는 모임이다.)

7~8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 불리한 일이 생기면 갑자기 간첩단 사건이 터져 정권의 일들이 묻히곤 했던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과 피해자들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은 달랐다. '진실의 힘 설립자들' 다큐 상영회에서 본 조작간첩단 피해자들의 육성을 통한 증언은 그동안 안 잊고 살았던 혹은 외면하고 살았던, 그러나 우리와 동시대에 사는 분들이 분명히 겪은 진실의 이야기 들이었다.

행사는 이번 12.3 비상계엄에 흑 예비검속으로 또 붙들려 가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떨며 밤잠을 설치셨다는 박동운 이사장님의 이야기에 이어 다큐 상영이 시작되었다.

- 1981년 신문 1면에 대서특필 됐던 진도 간첩단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한국전쟁 당시 5살 때 헤어져 30년간 보지도 못했던 아버지가 간첩으로 내려와 접선을 했다면 받아들이 자신과 동생, 어머니와 고모 고모부까지 일가족을 모두 간첩 혐의로 잡아들여 모진 고문을 받고 만나지도 않은 아버지와 함께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후 무기로 감면 받아 결국에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기 까지 18년의 징역 생활을 했던 박동운님의 이야기.
- 단짝 친구가 북에서 받아온 책을 내놓으라며 다짜고짜 잡아들여 구타와 고문을 하더니 친구가 북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었다고 털어놓으라는 강요에 거짓 증언을 하고 8개월 간의 형무소 생활을 한, 그 친구들과 화해와 용서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개야도 어민 임봉택님의 이야기.
-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 일본으로 연수를 갔다가 고모와 사촌을 만났던 일을 빌미로 남산의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고문을 받고는 모르는 사람들과 조총련 간첩단으로 엮여 7년의 징역을 살고 나오신 오주석님의 이야기.
- 남한에서 훈련을 받고 북파공작원으로 북한에 들어갔으나 체포되어 다시 남파간첩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자식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바로 자수를 했으나 간첩으로 몰려 사형 당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다 드디어 아버지의 무죄를 선고 받은 심한운님의 이야기.
- 연평도 조기잡이배의 선원으로 38척, 270여명의 선원들과 함께 북에 피랍됐다 풀려 난 후 한국에서 조사 받고 1년의 실형을 산 뒤 17년 후에 또 다시 영문도 모른 채 보안대로 끌려가 고문 받고 조작간첩으로 몰려 6년을 복역하고 나온 정삼근님의 이야기.

(교도소에 있는 동안 늘 번호로만 불렸다는 임봉택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 이분들의 이름은 하나 하나 꼭 불러 드리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비단 이 분들께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채 그 한을 다 풀지도 못한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실 것이다. 이분들이 받았던 고문은 사람이 도저히 사람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참혹함의 극치로 당시의 고통은 물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 안에서 받았던 고문보다도 밖에서 가족들이 이웃과 사회에서 받은 냉대, 그리고 연좌제로 인한 좌절은 간첩의 딸로 살아 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크에서 이야기한 박미옥님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었고, 오주석님의 둘째 아들의 대학 동기였던 나도 그 형제들과 어머니가 겪은 당시의 고초를 직접 들었기에 그 어려움을 어렵게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출소하고 나서도 이웃과 사회의 냉대와 손가락질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임봉택님의 증언을

보면 우리 사회가 정부의 발표만 믿고, 조작해서 죄를 뒤집어 씌운 국가 이상으로 얼마나 이분들을 힘들게 했는지 새삼 죄송한 마음과 반성을 하게 된다.

“정의를 믿은 거예요. 진실을 믿었고 그래서 무죄를 받았고 진실의 힘은 내 삶과 같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견뎌 내신 피해자분들이 드디어 무죄를 선고 받고 국가의 손해배상금으로 자신들 같이 국가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진실의 힘>을 만드셨다. 이 후 <진실의 힘>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자와 용산참사 피해자, 세월호 피해자 등 이 시대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심에 큰 감동을 받았다. 고통을 겪어 본 자 만이 그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일까.. 정말 ‘인간의 삶은 폭력보다 강하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들이었다. 다큐를 보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힘>을 통해 만난 조작 간첩 피해자분들이, 이런 좋은 날이 올 줄 어찌 알았겠느냐 며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며 함박 웃음을 지으시던 장면이었다. 평생의 응어리로 남아 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들어주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이해하면서 함께 해 주는 사람들의 모임.<진실의 힘>이 있어서 참 든든하고 고맙다. 이런 만남과 대화의 자리가 사소해 보이는 듯 해도, 한강 작가가 이야기 한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일'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 해도 따뜻한 연대의 마음으로 진실의 힘을 후원해주신 후원회원님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기부금영수증은 2025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합니다.

확인 후 기재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받아보길 원하신다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바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 02-741-6260 이메일 truth@truthfoundation.or.kr

■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공제 범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하신 모든 금액에 대해 후원금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발급기준>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후원 내역

<공제한도> 개인: 소득 금액의 30% / 법인: 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10% / 1천만원 초과: 30%

[2024년 후원 감사합니다]

강남규 강문민서 강서정 강영숙 강용주 강은옥 강창욱 강형철 고동민 고민경 고제영 곽경란 구미성 구종우
구혜임 권대우 권지윤 김경달 김경순 김경아 김경훈 김권호 김규태 김남섭 김동민 김미경 김민희 김병선 김상훈
김선정 김성숙 김성일 김소연 김순영 김시현 김애상 김영희 김용규 김원영 김유심 김은영 김응수 김이슬 김인수
김재명 김정애 김정우 김정인 김정현 김종규 김종익 김주영 김준성 김지순 김지은 김충례 김평호 김학주 김한수
김현무 김현정 김환균 김효정 나백주 노복미 류혜정 명지원 모재연 문장렬 민원식 박경미 박계용 박근홍 박노성
박미옥 박보경 박선이 박소희 박수빈 박영란 박옥희 박유리 박윤주 박장락 박정남 박종수 박종일 박주홍 박중석
박채연 박철홍 박충식 박현진 박형주 배소영 배진환 법무법인[유] 지평 서나경 서민아 설정희 손현주 손현철
송소연 송순영 송재혁 송지완 신경구 신동규 신동기 신동호 신진숙 심은정 심찬섭 안경호 안금자 안명옥 양경희
양남훈 염은진 오현석 우한철 원다라 위정미 유대근(한국일보) 유승찬 유재우 유창진 유현미 윤경희 윤양희
윤택진 윤혜영 이근행 이기범 이미정 이민주 이성엽 이옥 이옥란 이용현 이원식 이윤정 이은숙 이은애
이자영 이재범 이정미 이정식 이정자 이진 이채훈 이춘희 이한솔 이해림 이현주 이혜선 이혜영 이혜은 이효림
이희정 임순영 임인자 임혜영 장영아 장윤정 장은교 전원원 전치형 정길동 정길화 정남림 정대하 정미란 정미연
정범진 정봉숙 정유진 정윤하 정의로 정재홍 정종호 정주환 정혜경 정희선 조동찬 조미영 조미진 조은희 조일준
조진우진달래 진양숙 채수미 채옥희 채환규 천춘미 최득록 최보람 최성진 최세정 최승남 최승진 최영아 최은아
최은영 최정식 최진민 최진숙 하인숙 하지훈 한정열 한지연 한진영 허연숙 홍순성 홍지연 홍진아 황순규 황해지니